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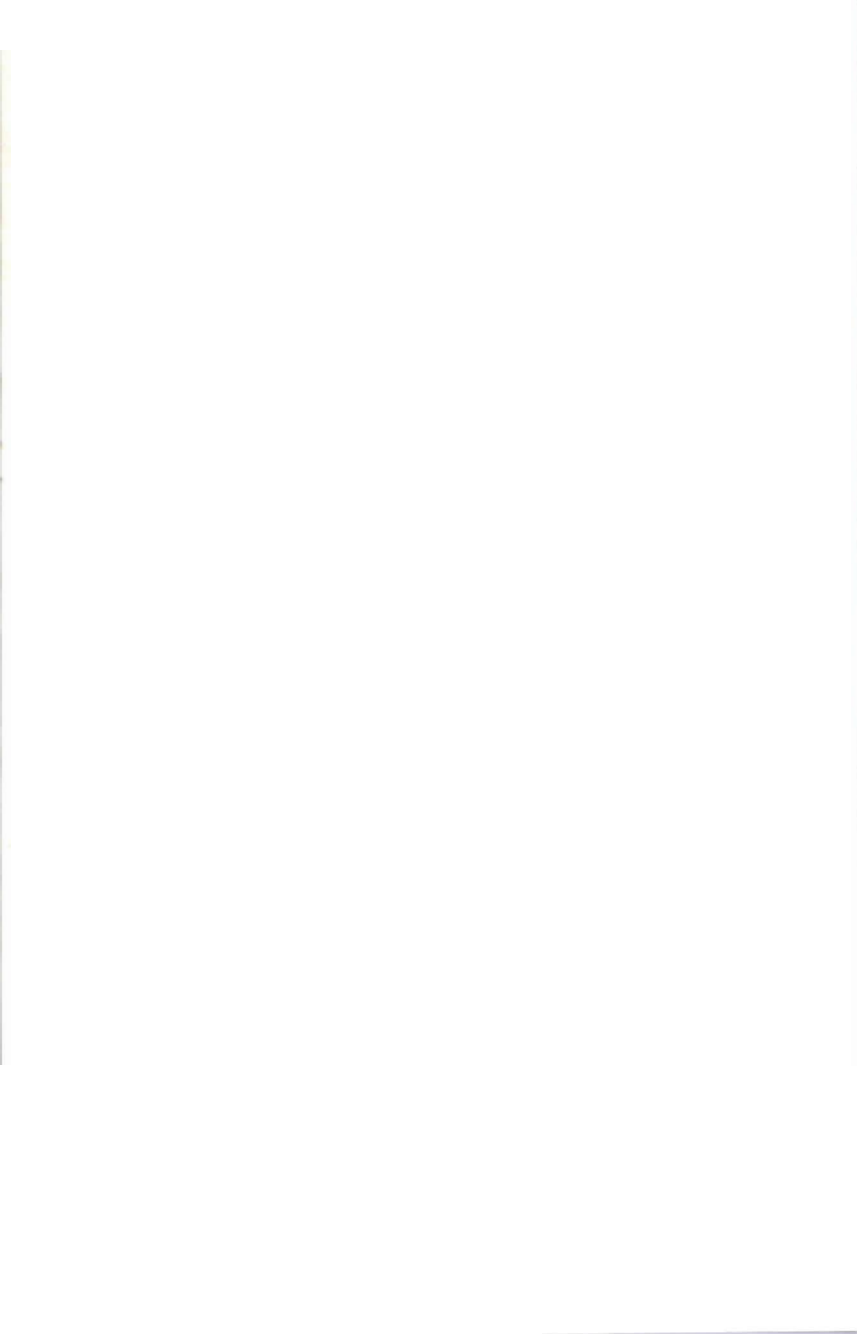
1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유다서 | 요한계시록 | 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유다서 | 요한계시록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 ②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 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딤후 2:14).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빌 3:12-16).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딤후 2:11).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계 22:17)
우리를 향한 이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200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걷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전도와 선교에 총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5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김두한 을남수업”

을남수업 강오현씨(홍익대)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의 첫 번째 이야기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 김두한 을남수업

매일 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이 책은 저자의 10년간의 성경묵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나기 위한 묵상과 영감의 방법과 습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1. 성경 묵상

묵상과 영감의 방법과 습관

성도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또 다른 호칭을 본문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호하사라는 의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2장과 25장의 베드로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 17:11)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당시는 현실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5절밖에 안되는 짧은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시 119:42)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지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1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을 지옥에 던져놓고 그것이 다시는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 버리시고,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결국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던 제자들이나 초리한 여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적하고 싸운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도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하는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는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은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 십자가 형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중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12-13절)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놓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8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릇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19절의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절)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께서 천국의 커튼을 살짝 열어서 천국의 예배 광경을 보여 주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10절).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드리는데 이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들을 주목해 보면 8절에서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8절). 이렇게 네 생물들이 찬양을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함께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찬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노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4절).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시 150:2)

기도 제목 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어린 양이란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11).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일부러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은 너무 힘들고 두려워 마음이 고통스러워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6절). 왜 하필이면 어린양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왜 어린양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린양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전개될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단계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본문에는 일곱 인봉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봉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심판은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무대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순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는 끔찍한 사건으로 접어들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0-21절). 이 환난은 일곱째 인봉을 떼는 광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 지구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기도 제목 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을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타나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14절)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 ‘흰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자칫 잘못 말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족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계만 있다”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 중에서도 흰옷 입은 성도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계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계만 있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내려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4-5절), 여기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5:8).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 받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세력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6:10).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열납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수 갚는 행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 12:20)고 권면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대적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가운데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시 109:4)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해도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갈 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일곱 번째 나팔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일곱 나팔의 재앙은 환경파괴와 인간파괴가 동시에 일어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게만 주어집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4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저자 요한은 최후의 무서운 환난 이전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확실히 구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재앙을 집행할 천사들의 행동을 유보하시며, 아직 인 맞지 아니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7:3).

이처럼 환난 날에 재앙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며(벧전 5:8), 때로는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사단에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장관으로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뿐입니다.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힘센 천사가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확인하고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임할 때는 이미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7절).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을 몰고 오는데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初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단의 몰락과 악인의 심판과 대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經綸)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엡 3:9).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식언(食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영원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구원의 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참 지혜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일에 몰두하여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난 일은 재앙이 아니라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15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을 꾀어 죄를 범하게 하여 세상 속에 침투하여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가시적 형태를 지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십니다(21:1).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나라는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죄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하신 왕으로서 의와 공평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간직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저자 요한은 사단이 내어 쫓김을 당하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그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되셨습니다(벧전 1:18-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어린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내걸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외양적으로는 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설령 육적인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5).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게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단지 견디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잡혀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10절).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 요한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9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당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투옥되기도 하며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론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인내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희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13절). 왜 성도의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11절). 우상과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마 11:28). 또한 성도들은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위로와 승리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된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 116:15)

기도 제목 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희정, 김진경 자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재앙을 퍼부를 일곱 천사의 모습이 묘사되고, 그 섭리를 찬양하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는 어린양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어린양을 찬미하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처럼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3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길로 헤매며 지나가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찬양합니다(요 14:6). 이 찬양은 만국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노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사단은 자신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기에 그가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은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공평하고 바르게 베풀어주십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4절). 이 찬양처럼 우리도 어린양의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만국의 왕이시며 거룩한 자임을 찬양하는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만국의 왕이요 거룩한 자임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파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일곱 천사가 가지고 오는 재앙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이 모든 재앙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론이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 더 나아가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과 마지막보다 더 넓고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합니다(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진노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자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창 7:23). 이 장에서도 그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질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도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마 24:36).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15절). 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장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단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파산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저마다의 재앙을 다 쏟은 후, 이 장에서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진정한 세력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 뒤에서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단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사단의 세력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음녀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지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요일 2:16). 이것은 세상에서 무신론과 유물론 또는 거짓된 철학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두운 죄악인 것입니다. 음녀의 술에 취한 세상의 열왕들(2절)은 한뜻으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칩니다. 짐승은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백마 탄 자인 그리스도께서 짐승, 곧 사단의 왕국들을 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아무리 성하여도 진리는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강하게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기도 제목 ① 실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일곱 개의 대접에 담긴 모든 재앙을 다 겪은 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1-2절). 그 과정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으로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그들의 불순종과 음행과 사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3절).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죄악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향락과 사치만을 위하여 돈을 쌓는 죄악된 인간의 왕국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듯이 죄악의 도성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바벨론 성의 심판 선포와 함께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함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을 같이 메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막 1:15).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영토나 영역으로 구분되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단의 지배에 있던 이들이 사단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며 멸절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드디어 성도들의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눈물로 이겨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눅 1:68).

본문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성도입니다. 이 장면은 대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앞으로 진격하는 장면입니다(11-14절).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오(딤후 4:7). 믿음으로 담대한 영적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장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천년 왕국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불행한 경우 이단으로 변질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에 앞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눌러 놓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앞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4-6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목 베임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해 전하는 강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이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다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다름 아닌 '생명책'입니다(11-15절), 그 책에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판의 자리에 서지만 못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명책'에 의해 심판을 받을 이들은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들입니다. "...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 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계시록의 긴 이야기 속에서 재앙이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은 왔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에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입니다(겔 37:27).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 모습은 요한이 보기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은 정도였으니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1-2절).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 들어 준비하신 선물을 그분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깊은 시름과 한숨까지도 감싸 안아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그곳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과 해와 달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양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비취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22-23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르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27절)

기도 제목 ① 천국을 소망하며 땅의 것을 버리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은 천사로부터 너무도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요한 사이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고 낮추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9절).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의 마지막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속에 거하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지막 장은 성도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요 14: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수많은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진노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6-11절).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송이 되었습니다(롬 9:5).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어 하늘에 올려 퍼집니다(1절).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송은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곤고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악인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45-46절). 참된 위로와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불법과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으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시죄의 은총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와 끊임없는 삶의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엡 6:18).

“...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이다”(시 106:48)

기도 제목 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바벨론포로시대의 절망과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10절). 그러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고후 7:10). 역사적 사건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주권적인 능력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참 의지해야 할 진정한 도움입니다(15절).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시며 항상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광야와 바다로 비유되는 역경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11절). 친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벧전 5:17).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악 가운데 산음하며 고통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은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07: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1-3 절).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과거의 승리를 돌아보며 오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내일의 승리를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믿음의 실재를 목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와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반드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골 2:15).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크셔서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립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위기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손을 의지하여야 합니다(딤후 1:12). 승리를 위한 준비는 그것이면 됩니다(13절).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야 합니다.

“...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도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을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겪어 보셨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악행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시인의 탄원과 저주는 그가 받았던 고난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회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4절). 이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롬 12:12).

악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개인적인 고난과 악행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가… 들어갔나이다”(18절), “수치를 겉 옷 같이 입게 하소서”(29절)와 같은 저주는 그 많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이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골고다 언덕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히 5:15).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기도 제목 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2절)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메시아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요일 4:12). 하나님이신 그 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 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입니다(3절).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무도 그 거룩한 직분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그 보좌에 앉은 제사장”(슥 6:13)이 되었습니다.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원수들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마침내 대적들의 잔악하고 맹렬한 죄악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6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악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롬 15:12).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1절). 거친 세파에 시달려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김으로써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길 주님이십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힘겹게 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밤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5절).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엄위하심을 목격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확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딤후 3:4).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사 65:17-25).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임을 알고 참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히 찬송합시다.

“...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자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하심...”(엡 2:7)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②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송미, 유미나 자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넘치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에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의인은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가 됩니다(약 2:5).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을 물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늘상급에 대한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것(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며 자비로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9절).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벧전 3:12).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여다 아멘”(롬 15:33)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할렐루야(1절)!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생명이 있어 마지막 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2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즐거움으로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의 지고하신 영광과 권세를 높이 드러내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보좌(위)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벧전 6:15).

검비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마침내 어찌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6-7절). 자비하심으로 땅을 충만케 하시며 인내로서 모범을 보여 사랑과 용서의 삶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찰하셔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골 6:5).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하신 구원계획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찬양합니다(빌 2:8). 할렐루야(9절)!

“...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롬 9: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②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1월 구역 공과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2005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의 초대장**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아갑시다.

1월 구역공과개요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01/07	빌 3:12-16	자신을 낮추는 신앙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01/14	딤후 2:11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01/21	딤후 2:14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01/28	계 22:17	마지막 초대	성령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 자신을 낮추는 신앙

| 포인트 |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 찬송 |

203장(나 행한 것으로)

213장(먹 보다도 더 겸은)

| 본문 | 빌 3:12-16

:¹²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¹³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¹⁴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¹⁵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¹⁶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막 4:19).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힘써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과로부터 인정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1 의의 열매

오직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의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완전치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젊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모두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 □□□□로 말미암아 □□ □□가 가득하여 하나님
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 1:11)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분 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	바울
롯의 아내는 □를 돌아본 고로 □□□□이 되었다라 창19:26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2 바울의 삶

바울은 평생 앞을 보며 달렸습니다.

빌 3:14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마귀의 주된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긋하게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정신
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고전 9:26-27

: 26 그러므로 내가 □□□하기를 항방 없는 것같이 아니
하고 □□□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 27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
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
진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
다(엡 4:12).

3 바울의 삶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빌 3:13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을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자신이 행한 업적을 섞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죄를 항상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고후 35

엡 38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 결심 |

다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낮추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써 봅니다.

교회 안에서 _____

가정 안에서 _____

일터 속에서(기타의 상황) _____

| 간절한 기도 |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1.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시 86:11)
2. 자기를 낮추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3.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구역식구들의 기도제목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포인트 |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 찬송 |

137장(놀랍다 주님의 은혜) 416장(하나님은 외아들을)

| 본문 | 딤후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성구를 참조하여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개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여 봅니다.

1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암송합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 53:6 | 우리는 다 □□같이서 그릇 행하여 각기 □□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을 그에게 담당시
키셨도다

사 64:6 | 대저 우리는 다 □□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
로 우리의 □□이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입은 찢리는 말과 저주와 분노에 찬 말을 통해서
독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발은 멸망과 파멸의 길로 행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
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
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암송합니다. 롬 6:23 / 히 9:27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롬 5:12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시 89:48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모든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율법을 범했고 그 결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도록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 25:41 ·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살후 18 ·

· …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10:28 ·

·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옥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죄의 고백 |

(2분간 조용히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사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 간절한 기도 |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1.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소서
2.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3.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구역식구들의 기도제목이 되게 하소서



3.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 포인트 |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 찬송 |

135장(갈보리산 위에)

142장(영화로신 주 예수)

| 본문 |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나누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리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1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_____ 을 받습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롬 3:24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로 값없이 □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 3:13 |

그리스도께서 □□를 위하여 □□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골 1:14 |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 곧 □ 사함을 얻었도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괴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몸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
수님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십
니다.

2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_____ 이 될 수 있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절수를 채우세요.

벧전 2: □ |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 □ |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가두어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됩니다.

3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 선한 일에 열심하는”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_____ 에 힘쓰게 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공통의 말을 써 보세요.

딤후 27,8

범사에 네 자신으로 □□ □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딤후 6:18

□□ □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성도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마 5:16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만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여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허물로부터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감동하사 선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쓰고 나누어보세요.)

|간절한 기도|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1.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2. 선한 일에 힘쓰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구역식구들의 기도제목이 되게 하소서

4. 마지막 초대

| 포인트 |

성령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 찬송 |

317장(어서 돌아오오) 318장(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본문 |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예수님계로 나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초대장 - “오라”

모든 _____ 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입니다.

Q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의 구절을 참고해서 써 보세요.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딤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는 2천여 개가 넘는 초대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금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2 마지막 초대 - “오라”

“성령과...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래 이것은 _____ 의 초대입니다.

고전 2:10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드십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찾아 빈 칸을 채우세요.

그가 와서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3 마지막 초대 - “죄인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참된 교회, 곧 그리스도

신부는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현대 교회의 잘못된 점을 써 보세요.

교회들은 세상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목마른 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눅 19:10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마 11:28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오라’는 마지막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 공동 고백문 |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옵소서.”

| 간절한 기도 |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1. 성령과 교회를 통해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2. 성령으로 충만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구역식구들의 기도제목이 되게 하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예배공과를 공부하는 분께

요약 및 공과를 공부할 때 요약을 잘 읽고 공과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초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성령,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신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 역시 결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설교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 진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기에게 초대하십니다. 성경에는 2천여 개가 넘는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 이르기까지,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들과 사사들과 왕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금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나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게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이것이 성령님의 초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부르도록 만드십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초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

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주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파멸될 것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벧후 3:12)!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나라들보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초대를 전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교회에 모이는 회중을 기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는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유명한 연사들과 가수들을 강단에 세우고, 활기 넘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교 모임을 만들고, 오락적인 요소를 예배에 가미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회중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목마른 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육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 기아, 전쟁, 질병, 이혼, 죽음의 고통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은 나이와 상관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목이 마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과 교회는 ‘오라’라는 마지막 초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마지막 초대
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히 ‘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교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는 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거절하며 외면하려 합니까? 어서 와서 생명을 받아 마시십시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서둘러 오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외치는 마지막 초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거 도	 다같이
추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1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이창수(1-8일), 윤수일(9-16일), 이재영(17-23일), 이성진(24-31일)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